

제3회 부다피아 하와이 영어·문화 체험 캠프 현장

지 상 최고의 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 그 하와이에서 볼자 자녀를 위한 제3회 부다피아 여름 영어·문화체험 캠프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여명의 볼자 자녀들은 7월27일부터 8월17일까지 21박22일간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다. 3주간의 여학문화체험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에서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났다.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어 너무 기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 오전 하와이 무량사 교육원에서 열린 원어민 교사의 '영어 학교'. 부다피아 영어캠프 체험단원들은 영어로 말하며 수업에 참가했다. 또 하와이 진주만 추모공원을 방문(왼쪽 사진) 하는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며 각종 체험도 했다.

영어로 자신감 생겼어요

"알로하~!" 현대불교신문 어린이 청소년문화체험단(이하 체험단) 10여명이 하와이에 도착한 7월 27일. 한국에서는 폭우로 연일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하와이 하늘은 거짓말처럼 쾌청했다. 매년 영어캠프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의 신도들이 공항에 나와 직접 레이콧목걸이를 걸어주며 하와이 식으로 인사를 건넨다. 이들 체험단은 무량사 일일법회에 참석해 하와이 교포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것으로 입제

사과정)의 말에 연거푸 단어를 말해 "대다수의 미국인들도 알지 못하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 수업시간에 골짜기 발표를 한 정진이(15)도 데니 선생님(하와이주립대 박사과정)에게 "독창적이고 신선한 발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들을 가르친 원어민 교사들은 한결같이 "한국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 놀랐다"라고 평하면서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는 듯 보여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 캠프의 목표"라고 말했다.

며 마음이 활짝 열렸다. 매일 오후 인근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와이키키 해변의 새하얀 모래밭에서 선풍을 즐기거나 아자수 그늘에서 휴식을 취했다. 제주도에서 온 장현이(11)는 물 만난 고기처럼 남태평양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며 "제주도에는 해파리가 많고 파도가 거센데 이곳엔 물이 더 맑고 수영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활짝 웃었다. 여가 시간에는 하와이플래이션, 미국 국립묘지 편지, 이올라니 궁전을 관람하며 역사와 문

1대1 프리토키방식 수업 진행 물건사며 현지인들과 대화

식을 시작했다. 법회에서 도현 스님은 "하와이에서의 생활을 통해 생생한 문화를 '날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어 직접 써보내 재미! 7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영어공부가 시작됐다. 무량사 문화원 1층에 마련된 여학실에서 진행되는 영어학교는, 영어난이도에 따라 반을 나누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초·중등반을 나누지 않은 대신 1:1 프리토키 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됐다.

체험단은 선생님과의 시창에 나가 물건을 사고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도 했다. 하와이 주립대를 방문해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미국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는 등의 현장학습도 했다. 영어학교 총책임자인 하와이 주립대 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 김민선 교수는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미국문화강의'를 실시했다. 원어민 교사의 수업 후에는 아이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 예습과 복습을 진행했다. 영어공부에 새로운 재미를 붙인 민길이(14)는 "영어선생님들이 정말 좋다"며 "한 단어 더 공부하면 내일 한 마디 더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재미가 생긴다"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다. 3주 동안 이들은 현지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배우기 힘든 표현들을 익히게 됐고, 옆에서 누가 재채기를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

매일 한시간 '미국문화강의' 美 대학교육 시스템 체험도

화를 배우고, 폴리네시아 민속촌에서 우쿨렐레의 선율이 잠겨 하와이의 흥취와 불꽃도 관람했다. 진주만 추모기념관에서 2차 세계대전 관련 다큐멘터리를 감상한 나리(11)는, "일본은 정말 나쁜 것 같다. 유관순 언니가 생각해서 더욱 숙연해진다"며 속 깊은 생각을 털어 놓기도 했다. 순식간에 캠프 일정이 훌쩍 지나가 돌아가는 날인 8월 17일, 누구보다도 친해진 10여명의 아이들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다. 생생한 영어를 체험한 아이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자신 있어요." "머릿속에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3주가 짧게 느껴져요."

진주만 등 역사현장 둘러보고 홀라춤도 관람 예메랄드 빛 바다. 쾌청한 산들바람, 비온 뒤 선명하게 떠오르는 무지개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안겨 생활한 체험단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겪

미국 하와이/글·사진=이은비 기자



우리지역 군법당 힘껏 도와야죠

일산보현가족 10년째 매월 2차례 후원·방문

'지역 군법당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모토 아래 10년 넘게 군법당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 일산 신도시 입주 당시 처음으로 이웃이 된 볼자들끼리 가족법회를 보자며 설립한 일산보현가족이 바로 그 주인공. 서울 도선사, 안국선원, 남양주 봉선사 등에서 신행생활을 하다가 일산으로 이주해 마땅한 신행 생활을 찾지 못했던 일심명 보살 등 10여 볼자 가족들이 모여 1993년 처음으로 모임을 갖고 가족법회를 병행했다. 보현보살의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모임 이름도 '일산보현가족'이라고 명명했고 지역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하자고 뜻을 모으고 고양 지역에 군부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 군법당을 돕기에 나서게 됐다. 일산보현가족은 현재 매월 둘째주 101여단 군법당과 매월 4째주 9사단 신병교육대를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9사단 예하 52부대에서 장병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며 봉축 법오식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부대에 필요한 물품을 현물 지원을 하는 등 지역 군법당과 결연 이상의 꾸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은 일산 여려사, 정혜사 등 사찰이 건립되어 회원들이 서로 다른 사찰에서 신행 활동하고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해온 군법당 지원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 확대되고 있다. 일산보현가족 회장 이자비행보살은 "창단 멤버들이 벌써 70이 넘었고 지금은 4~50대 주부 볼자들을 주축으로 가족법회를 하며 지역 군법당을 후원하고 있다"며 "빵, 과일, 음료수 등의 위문품을 갖고 매주 4째주 9사단 신병교육대에 방문하면 마치 아들을 만난 것같이 기쁘다"고 말했다. 일산보현가족은 군법당 지원 뿐만 아니라 불교 복지시설인 서울 상락원, 동국대학교 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여름 강원도의 수재를 돕기 위해 100만원을 모금해 기탁하기도 했다. 9사단 호국 백마사 이익수 군법사는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일산보현가족은 10년이 넘게 지역 군법당을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다"며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장병들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장병들의 포교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계룡대 호국사서 예비군순 수련회

'2006 예비군순 하계수련회'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육군 계룡대 호국사에서 병행됐다(사진). 향후 군법사로 임관될 예비 군순 50여명이 동참한 이번 수련회는 군포교 활동에 필요한 EGO-OK그림 교육, MMPI 심리검사, MBTI 심리검사, 선수행과 심리상담 등 상담 교육과 기초 의식 점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은 수련대



회에 동참해 '군포교의 주역이 되기 위해 군법사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며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당부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행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인 동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軍佛敎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입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연간 1만 6천여 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호종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볼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軍佛敎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ARS 환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종교구로 연락주시시오.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제일은행 325-20-203673 조흥은행 377-01-058158
우리은행 1005-580-051116 우체국 010025-01-010767
농협 094-01-156954 국민은행 477401-01-092896
지로번호 7681972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內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 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